무단 절토에다 출토 암반은 곳곳 방치

한경면 고산리 일대 무단 작업… 주변 밭 우수 피해
제주시 불법 사항 확인… 절차 밟아 경찰 고발키로
행위자 "농사 목적으로 허가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이 무허가 절토 작업으로 우수가 고여 마치 저수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무허가 절토 작업 과정에서 고인 우수로 인해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 지목상 전으로 등록된 이곳은 한눈에 봐도 밭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이 고여 마치 저수지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대형 굴착기 2대와 덤프트럭 2대 등 총 4대의 중장비가 멈춰서 있었고,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나온 암반이 도처에 널브러져 있거나 한쪽에 산을 이루며 쌓여있었다. 마치 골재를 채굴하는 채석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해당 토지 인근 주민은 "꽤 오래 전부터 돌을 캐는 작업이 계속돼 왔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내린 비가 그대로 고여 저수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고여있던 빗물이 주변 저지대 밭으로 흘러가 침수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과거에도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 5시까지 고산 지역은 266.3㎜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시와 한경면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나 농지 전용 허가, 타용도 허가 신청 등은 전무했다. 또 농사의 편의를 위해 행정에서 암반 제거를 지원하는 암반 제거사업 대상지도 아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서 이뤄진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며, 절토 작업을 실시한 A 씨는 허가 신청 없이 무허가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2m 이상 절토 또는 성토 작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된다"며 "현장 확인 결과 고여있던 우수 유출로 인한 피해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A 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 측은 제주시와의 면담에서 "임대한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태풍 북상에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 금지

18일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일시정지 조치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해경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어 제주해역에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해안가의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항·포구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홋줄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일과 월파 등으로 인한 침수·침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은 소유주에게 육상으로 인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피항 중인 선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점검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무사히 지나기를…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서귀포시 성산항에 많은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강희만기자

음식점 가스버너서 불길
음식 먹던 손님 3명 중경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스버너에서 불길이 치솟아 손님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5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A(65)씨 등 3명이 테이블 부착형 가스버너에서 치솟은 불길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안면부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일행 두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테이블 가스버너 위에는 음식이 담긴 냄비가 놓여져 있었고, 조리를 위해 약 1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립소방연구원에 부탄용기 및 가스버너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000명 돌파

지난 17일 270명·18일엔 153명… 총 33만1055명

이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70명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까지는 1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10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에선 총 2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8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1268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 별로는 0~9세(9.8%), 10~19세(11.2%), 20~29세(12.7%), 30~39세(14.5%), 40~49세(15.6%), 50~59세(14.0%), 60~69세(10.7%), 70~79세(6.8%), 80세이상(4.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선 9025명이 확진됐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2347명이며 이 중 2339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1명, 치명률은 0.06%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로 달리던 차량서 화재
차량 전소… 인명피해는 없어

도로를 달리던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37분쯤 제주시 화북1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0분 만에 모든 화재를 진압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엔진룸 전체가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30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정차해 119에 신고했으며, 최근 계기판에 ABS와 브레이크 경고 등이 점등됐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성어기 외국인 불법취업 특별단속

제주해경 오는 11월까지 집중 전개키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과 알선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 제주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한 단속 연계 ▷고용인 협력·조력자 등 알선책 색출 ▷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계기관(출입국·외국인청) 정보 공유 ▷해상 검문 검색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2019~2021년) 제주해경이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인은 57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검거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몬 미니향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